

## 200자 안내

### 영혼의 피리소리

류시화 엮음

신과의 만남과 명상의 기쁨, 존재의 환희, 삶의 철학을 노래한 종교 선지자들의 시를 모은 책. 인도의 회교신비가 까비르와 요가 수행자인 요가난다, 신에의 헌신을 노래했던 타고르, 그리고 도가의 장자, 일본 禪詩의 대표적 인물인 이규와, 僧과 俗을 초월했던 한국의 경허선사 등 9명의 심오한 지혜의 노래가 삶의 본질을 일깨워준다.

정신세계사 / A5신 / 176면 / 2500원

### 映像藝術論

重森弘淹 지음 / 황왕수 옮김

예술성을 추구하는 사진영상의 의의를 정면에서 다룬 이론서. 영상의 성격과 여러가지 문제들, 사진의 발달과정과 현실의 문제, 영상의 공간성과 시간성 등 이론정립을 시도한다. 영상의 기록성과 예술성도 규명, 다른 예술과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현대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예시하여 구체적인 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다보문화 / B6변형 / 224면 / 4500원

### 애수의 美, 퇴폐의 美

金允植 엮음

在北·越北·해금작가들의 수필선집. 한국 근대문학사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오던 김윤식 교수(서울대)가 해금시인선집에 이어 수필선집을 엮었다. 카프계열 문인 林和의 「수필론」, 金南天의 「현대여성미」, 구인회 멤버 李泰俊의 「雪中訪蘭記」를 비롯 金瑋俊, 裴洸, 吳章煥 등 18인의 산문 61편을 실었다. 일상적 삶을 소재로 한 각 작가들의 자기분석이 투영돼 있다.

나남 / A5신 / 230면 / 3000원

### 놀이지도의 이론과 실제

김명희 엮음

유아들의 지각능력과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각종 놀이지도의 이론과 실제를 소개한 유치원교사용 교재. 언어능력, 수학능력, 사회적 적응력, 공간지각 능력 등을 기르는데 유용한 각종 놀이를 지도하는 방법이 풍부한 그림과 함께 제시돼 현장교육의 지침서로 삼을 만하다.

教文社 / B5 / 218면 / 4500원

### 시간관리와 자아실현

유성은 지음

시간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자아실현에도 성공적임을 강조하면서 시간관리기술을 소개한 지침서. 시간운영을 위해 우선 자신의 생활습관을 분석한 다음 합리적 생활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적인 시간예산을 작성한다. 타성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시

간관리를 함으로써 총체적인 인간의 삶을 꾸릴 수 있음을 강조한다. 부록에 자아인식 척도, 관리자의 목표 점검표 등을 수록했다.

승문출판사/A5신/204면/3500원

### 세계문학사

클리블트 외 지음 / 독서신문사 편역

세계문학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그 대강을 '쉽고 빨리' 섭렵하는 방법을 제시한 안내서. 클리블트의 「세계문학사」, 헤세의 「세계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미쇼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등 3편의 글을 함께 묶었다.

배재서관 / A5신 / 346면 / 4000원

### 아비달마의 哲學

上山春平 외 지음 / 정호영 옮김

인도불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의 하나였던 아비달마불교(小乘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해주는 책. 폐쇄된 僧院 속에서 현학적 연구에만 몰두함으로써 중생구제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려진 소승불교의 기본사상과 개념을 평이하고 간결하게 해설했다.

민족사 / A5신 / 258면 / 4000원

### 創作舞踊入門

제인 위날스 지음 / 장정운 옮김

유럽 현대무용의 신체운동 법칙과 체계를 세우는데 큰 영향을 끼친 쿠르트 요스와 지가드 리더의 무용교수법 및 트레이닝방법을 충실하게 기록한 책. 아이들의 놀이동작, 일상적 행동과 제스처로부터 무용동작의 체계

를 추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금광 / A5신 / 186면 / 4500원

### 감자씨의 법씨의 통일이야기

교육출판기획실 엮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구체적인 실감들로부터 통일의 가능성이 모색돼야 한다는 취지 아래, 학생, 교사, 이산가족, 농민 등 제각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작은 생각'들을 같이 묶고, 쉽게 씌어진 7편의 통일론도 따로 모았다.

푸른나무 / A5신 / 270면 / 3200원

### 앉아서 기다린 스파이

R·라이트 칸벨 지음 / 김길수 옮김

권력투쟁의 각본 앞에 철저히 희생당하는 한 평범한 독일 스파이의 기구한 일생을 그린 장편소설. 사건 및 스토리 중심의 여느 스파이소설과는 달리, 스파이 특유의 불안, 초조, 긴장 등 심리적 갈등의 치밀한 묘사가 돋보인다.

정음문화사 / A5신 / 332면 / 3500원

### 황혼(상·하)

한설야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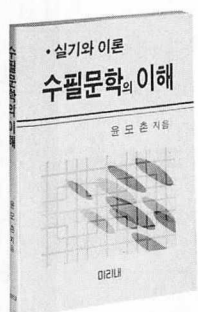
울초의 추가해금조치로 우리 문학사에 복귀하게 된 월북작가 韓雪野의 대표적 장편소설. "전무후무한 불경기로 세상은 또다시 전쟁이 난다고 떠들어대던" 1930년대 중반 식민지사회의 불안을 예측자본가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다.

창작과비평사 / B6 / 각300면 안팎 / 각 2500원

### 화제의 책

## 수필문학의 이해

윤모춘 지음



실제 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씌어진 수필문학 입문서 「수필문학의 이해」가 간행됐다.

수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고급의 名文에서 가려뽑은 풍부한 예문을

통해 친절하게 해설하고 있는 이 책은 크게 수필론 및 창작실기론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필론에서는 수필의 문학장르로서의 독자성과 다른 장르와의 변별점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창작실기론에서는 문체·수사·형식·표현·퇴고 등 수필창작의 전반을 광범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적절한 예문의 제시로 창작현장에 밀착된 이론 습득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권말에는 장덕순·장백일·공덕룡·박계식 등의 수필론을 따로 모았으며, 이중 홍정선의 「시인이 쓴 잘 팔리는 수필」은 이즈음 베스트셀러의 성가를 높이고 있는 '시인수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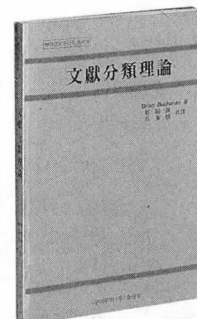
수필집 범람시대의 반대급부로 일반화된, 수필은 아무나 쓰는 '쉬운 장르'라는 그릇된 생각을 깨치는데도 도움을 준다.

미리내 / A5신 / 294면 / 4000원

### 이색출판

## 文獻分類理論

부케넨 지음 / 오동근 외 옮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핵심업무인 문헌분류의 원칙과 이론, 그리고 그 실제적 적용의 예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文獻分類理論」이 나왔다.

이 책은 특히, 종래의 '열거식분류법' 대신

아이디어단계, 언어단계, 기호단계의 3단계 이론에 근거한 '분석적 합성식분류법'을 제시하고 있어 기왕의 이 방면 개론서들과 구별된다. 그에 의하면, 아이디어단계에서는 각 주제를 기본 주제로 세분한 다음 그 주제간의 관계와 순서를 정하고 구조를 설계하며, 언어단계에서는 이렇게 세분된 주제에 표준적인 명칭을 부여하게 되고, 이어서 기호단계에서는 이러한 주제와 명칭을 분류기호로 변환하여 합성하는 절차를 거친다.

즉, 하나의 분류표에 모든 주제와 항목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세분화된 분류와 그의 적절한 조합이 정보추적과 검색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유용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간결하고 적절한 예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분류작업은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가를 알기 쉽게 풀어쓴 도서관 사서용 지침서.

구미무역 출판부 / A5신 / 166면 / 4500원

## 隨筆創作의 理論과 實際

尹在天 엮음

김태길·김소운·피천득·장덕순·윤모춘·윤오영·박연구 등 문인·학자 60여명의 수필론 및 수필창작론을 함께 묶었다. 권말에는 현행 중고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돼 있는 수필을 중심으로 한 편자의 「수필작품 분석고찰」을 덧붙였다.

중앙교육문화 / A5신 / 390면 / 6000원

## 돈이 보낸 편지

李義容 지음

삶에 대한 진실은 단 한마디의 말로도 전달될 수 있다. 이 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짙막한 예화들 72편을 모아 컬러삽화와 함께 엮고 있다. '아들을 위한 기도' '훈장과 여왕의 눈물' 등 3분이면 읽을 수 있는 길이의 이야기들이 오랜 여운을 남겨준다.

대림기획 / A5변형 / 128면 / 2800원

## 코리아니즘 선언

장민석 지음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책. 저자는 '다가오는 21세기는 아시아의 것'임을 주목하면서 국제환경과 아시아의 위치를 살피고, 남북이 하나로 뭉쳐 아시아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갈 것을 제안했다.

선영사 / A5신 / 364면 / 4500원

## 바른 식생활

아델 데이비스 지음 / 이규석 옮김

성인병 예방을 위한 알기쉬운 식생활 소개

서. 미국의 영양학자인 저자는 건강은 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식사와 식품에 함유된 영양물질로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을 풍부한 예증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영양과 건강사 / A5신 / 248면 / 3000원

## 자랑스런 나의 어머니(2)

MBC교양제작국 엮음

MBC의 「자랑스런 나의 어머니」에서 방영됐던 수기 42편을 모아 엮은 책이 두번째로 나왔다. 가난과 고난의 운명 속에서도 자식을 훌륭히 키우려는 모성애가 청소년의 눈을 통해 비쳐지고 있다. 신앙처럼 굳고 강인한 어머니의 사랑은 각박한 의식에 갇혀 사는 현대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청조사 / A5신 / 278면 / 3000원

## 인간, 그 존엄한 생명

F.A. 쉐퍼 외 지음 / 김재영 옮김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 등의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의 생명에 대한 파괴현상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고발, 분석한 책. 인간생명의 존엄성 회복과 의술의 도덕적 사용이 확고한 원칙으로 정립되지 않는 한 현대과학의 발달은 오히려 더 광범한 폐해를 야기시킬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라브리 / A5신 / 280면 / 3800원

## TV 드라마制作論

趙東熹 편저

방송작가인 저자가 실무과정에서 얻은 지식들과 국내외의 새로운 이론들을 모아 펴낸

드라마 제작론. 1부에서는 TV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안내했으며, 2·3부에서는 극작과 연출에 대한 심층연구와 대본분석을 피했다. 4부는 TV드라마 연출론으로, 화면구성의 구체적인 요소와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해냄출판사 / A5신 / 242면 / 5000원

## 핸들 잡은 예수?

서울대교구 사목국 엮음

가톨릭 택시운전기사 사도회 회원 103명의 수기를 모은 책. 하루 스무시간 가까이 핸들을 잡고 이 거리, 저 끝목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눈에 비친 세상풍경, 피곤과 짜증으로 가득찬 힘든 삶을 살면서도 이웃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의 작은 미담을 소개하고 있다.

세남 / A5신 / 330면 / 3300원

## 무크

## 여성(제3집)

[좌담]민족민주운동과 여성운동(이영순·이미경·최한배·허훈순·김상희·유송화·함희숙)

[특집]한국여성의 노동현실과 운동 ▲한국 여성노동자의 건강문제(고경심) ▲한국 여성노동자의 차별적 저임금실태와 극복방안(정혜선 외) ▲한국 여성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시론(조순경) ▲차별의 사슬을 뚫고 전진하는 여성노동자운동(박석분) ▲주부운동의 논리와 조직(이옥경) ▲도시빈민여성의 실태와 의식(조미혜)

[외국의 여성운동]스페인의 민주화와 여성운동(M. 앙헬레스 두란 외)

[서평] '민중의 바다'와 '꽃파는 처녀'(이상경)

[기획연재]올바른 여성문학의 정립을 위하여 ▲「토지」에 나타난 여성문제 인식과 역사적식(김성희 외)

[르포]여성농민의 삶과 투쟁(윤영순)

창작과비평사 / A5신 / 336면 / 3800원

## 학술지

## 韓國文學研究(제11집)

[특집]无涯 梁柱東 선생 ▲무애 양주동선생의 국문학(이병주) ▲무애 양주동선생의 국어학연구(최세화) ▲무애 양주동의 시와 譯詩(김장호) ▲무애 양주동의 비평활동(김시대)

[논문]▲일본의 대학에 설치된 韓國語文學科類에 대하여(김영배) ▲雲谷 宋翰弼의 詩文學(배상현) ▲「玉匣夜話」의 분석적 고찰(김영동) ▲成侃의 詩世界考(이종건) ▲「님의 침묵」의 존재론적 상상구조(고재석) ▲1930년대 고전부흥운동의 문학사적 의의(황종연) ▲초기 僧傳의 서사구조 상상(김승호) ▲무애 양주동의 문학론연구(장영우) ▲陸史詩의 환각과 위외(송희복) ▲陶隱 李崇仁의 시문학연구(박중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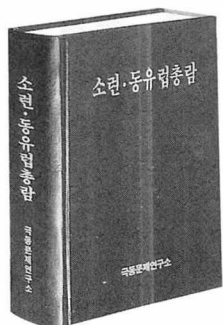
단국대 한국문학연구소 / B5 / 350면 / 비매품

200자 안내

## 자료집

## 소련·동유럽총람

극동문제연구소 엮음



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급속적인 관심의 제고에 반해 이들 국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는 상대적으로 빈약했었는데, 최근 「소련·동유럽총람」이 발간돼 그같은 정보갈증을 풀 수 있게 됐다.

크게 '소련편' '동유럽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자연, 역사, 정치, 경제, 산업, 외교, 군사, 사회, 문화 등에 걸쳐 각종 자료와 정보를 총괄, 집성하고 있는 이 책은 특히 풍부한 통계분석이 적절하게 제시돼 소련 및 동구권 이해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별로 출입국수속 및 숙박, 관광코스 등을 망라한 친절한 '여행안내'를 덧붙여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소련편의 경우 그들의 한반도정책에 따라이 한 장을 할애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체제개혁과 개방'으로 상징되는 소련 및 동구권 자체의 내부변화, 그리고 그들과의 연간 무역거래액만도 50억달러를 넘어선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시의적절하게 발간된 충실한 내용의 자료집으로 평가될 만하다.

극동문제연구소 / B5 / 1430면 / 60,000원

## 화제의 책

## 臨政과 李東寧研究 石吾 李東寧研究



상해임시정부의 초대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국독립운동사의 거목 李東寧의 탄신 120주년을 맞아 그에 대한 두권의 연구서 「臨政과 李東寧研究」(李炫熙, 일조각)와

「石吾 李東寧研究」(이현희·金錫營, 서문당)가 최근 거의 동시에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중 앞의 책은 1919년을 기점으로 이동녕의 생애를 二分, 臨政을 주도하게 되는 후반기에 특히 초점을 두고 그의 항일투쟁과 사상적 편력을 당대 상황과의 조응관계 속에서 규명함으로써 이동녕의 '참인물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후자는 '그 생애와 사상의 재조명'이란 부제가 가리키는대로 이동녕의 개인사를 규명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둔 평전의 성격이 짙는데, 혁명가·교육자·언론인·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살피는 개별논문 4편을 함께 묶었다.

서술의 양식에서도 전자는 세밀한 각주를 동원한 본격연구서, 후자는 쉽게 풀이한 계몽서의 특징을 보여 좋은 대조와 상보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